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폐현수막 활용한 재활용사업 추진 나서달라”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29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재추진으로 일석삼조 효과를 창출하자’란 주제로 발언을 진행했다.

구 의원은 “오늘 본 의원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의 ‘재추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8년 전인 2010년 말 본 의원이 ‘환경도 보호하고 현수막 소각비용 예산도 절감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취지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제안했고 2011년 2월부터 사업을 시작, 2011년 장바구니 제작과 2013년에는 청소 마대제작 등이 구청차원으로 진행되다 2013년 12월 중단됐다”면서 “중단된 지난 5년이 아쉬움이 크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를 위해 먼저 구청, 도시관리공단, 복지관 등의 공공영역에서부



터 실천이 필요하고 소화 가능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이 무엇이 있을지 타구의 사례도 검토하고 해당부서와 협의,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며 “더 확장해 민간영역에서도 폐현수

막 재활용 제품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 어떤 것이 가능할지는 본 의원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지역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주체와 단체를 발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면 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앞서 확인한 환경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이 2019년에는 5개 자치구로 더 확대된다는데 우리 강북구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북일보 4면

5분 자유발언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재추진해 일석삼조 효과 창출”

구 본 승 의원

(무소속/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구본승 의원은 10월 29일 열린 제21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재추진으로 환경보호, 예산절감, 일자리 기여의 일석삼조 효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구 의원은 이미 8년 전인 2010년 말에 본 의원이 <환경도 보호하고 현수막 소각비용 예산도 절감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취지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제안하였다. 2011년 2월경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2011년엔 장바구



▲ 구본승 의원.

니 제작, 2013년엔 청소 마대제작 등이 구청차원으로 진행되다가 2013년 12월에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단된 지난 5년이 아쉬움이 크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먼저 구청, 도시관리공단, 복지관 등의 공공영역에서부터

필요하고 소화 가능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이 무엇이 있을지 타구의 사례를 검토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더 확장해서 민간영역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본승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주체와 단체를 발굴하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면 사업이 재추진 될 것이며, <환경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이 2019년엔 5개 자치구로 더 확대된다는 데 우리구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구본승 강북구의원 5분발언〉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재추진’ 제안



▲ 구본승 강북구의원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재추진으로 환경보호, 예산절감, 일자리 기여의 일석삼조 효과를 창출하자’는 것을 제안

하고자 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의 ‘재추진’ 이유는 이미 8년 전인 2010년 말에 본 의원이 <환경도 보호하고 현수막 소각비용 예산도 절감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취지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제안하였고 2011년 2월경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2011년엔 장바구니 제작, 2013년엔 청소 마대제작 등이 구청차원으로 진행되다가 2013년 12월에 중단됐다. 중단된 지난 5년이 아쉬움이 크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구청, 도시관리공단, 복지관 등의 공공영역에서부터 필요하

고 소화가능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이 무엇이 있을지 타 구의 사례를 검토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겠다. 더 확장된다면 민간영역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어떤 것이 가능할지는 본 의원도 함께 협의하겠다. 그러면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주체와 단체를 발굴하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면 사업이 재추진 될 것.

더 나아가서는 앞서 확인한 <환경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이 2019년엔 5개 자치구로 더 확대된다는 데 우리구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좋겠다.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5분 자유발언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재추진 제안



구본승 의원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10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재추진으로 환경보호, 예산절감, 일자리 기여의 일석삼조 효과를 창출하자’고 했다.

구본승 의원은 각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폐현수막 재활용 사례사진을 보이며 “본 의원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의 ‘재추진’을 말씀드린 이유는 8년 전인 2010년 말에 본 의원이 <환경도 보호하고 현수막 소각비용 예산도 절감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취지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제안하였고 2011년 2월경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2011년엔 장바구니 제작, 2013년엔 청소 마대 제작 등이 구청차원으로 진행되다가 2013년 12월에 중단되었다”고 밝히고

“중단된 지난 5년이 아쉬움이 크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이를 위해 먼저, 구청, 도시관리공단, 복지관 등의 공공영역에서부터 필요하고 소화가능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이 무엇이 있을지 타 구의 사례를 검토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고, 더 확장된다면 민간영역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 또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주체와 단체를 발굴하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면 사업이 재추진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환경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이 2019년엔 5개 자치구로 더 확대된다는 데 우리구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제안에 대해 검토결과와 추진 사항을 서면답변해 달라고 했다.